

정례브리핑

2020.3.27(금) 10:30, 여상기 대변인(통일부)

안녕하십니까? 3월 27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

먼저 장차관 일정입니다.

장관과 차관은 오늘 별도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.

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
[질문 · 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해외 각국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북한이나 아니면 북한 지원 민간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.

<답변> 예, 민간단체에서 문의 수준의 문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출 정도로 진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<질문>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소집한다고 했는데요. 매년 최고인민회의 소집 때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가 취해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의도로 소집됐다고 보시는지요.

<답변> 북한이 매년 4월경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고 또 최고인

민회의에서 예산 관련 의결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.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점이 논의돼야 될지는 제가 예단하기는 힘든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

<질문>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가 비상방역체계 두 달째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게 좀 어떤, 방역의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나요?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

<답변>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방역의 자신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.

<질문> 그러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다른 때와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좀 다르게 추진하는 게 포착된 게 있나요? 얼핏 듣기로는 원래 한 2~3일 전에 등록을 하는 것을 당일 하게 했다는 등 그런 조치가 보인다고 들었는데요.

<답변> 그것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비단 정치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활동 차원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차원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
여기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끝>